2015년 03월 23일 (월) <더미래연구소> 조찬세미나
남재희장관의 이문현답(異問賢答) - '질문을 달리하면 답이 보인다'

<강연>

최병모

아무튼 우리 더좋은미래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출범하고 첫 번째 조찬모임입니다. 오늘 특히 날씨도 쌀쌀한데,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른 아침에 자리를 가득메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남재희 장관님의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기탄없이 토론해주시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쁘신 의원님들 많이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희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 이틀 후인가 보니까 신문에 이모임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기금을 내어 가지고 연구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신문사에 거창하게 난 걸 보고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내가 괜스레 겁 없이 수락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취소할 수고 없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모 변호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최병모 변호사님이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재심의 변호사,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신원(伸冤)이죠, 신원. 그 변호사님이십니다. 재심을 맡으셔서. 물론 변호사님도 애쓰셨고 당시의 대법원에서도 잘 판단해서 무죄가 되어서, 신원이 되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 최 변호사님이 여기 계셔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오라고 한 것은 제가 노동문제를 조금 다루어 봤으니까, 노동관계의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목희 의원은 아주 그 전공이고, 또 저기 늦게 왔지만 은수미 의원도 그 쪽은 아주 상당히 전문가고 제가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망신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해온 것을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한 열 가지쯤 적어 왔는데, 첫째로는 제가 어디다가 다른데다 원고를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근래에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월스트리트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미국에서도 자꾸만 문제를 제기합니다. 타임이나 이런 잡지는 상당히 어름해서 보수적인 잡지인데, 타임 잡지서 까지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도 월스트리트에서 한 두서너 달 전 보도입니다마는 아주 편중되게 정치자금을 거기서 한 10억불정도를 그때 당시 얻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월스트리트에 아주 완전히 정치자금을 의지하고 있다는 식인데, 그럼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가 월스트리트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월스트리트의 영향으로 파생상품을 발행하기 좋게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칙을 못 받지만.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겠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Ann Warren)이라고 상원의원, 이런 양반 아주 반격을. 이 양반은 좀 진보파니까, 그런 싸움이 붙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속으로 짐작한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것도 공화당 보다는 약간 진보적인데, 개혁적인데, 역시 월

스트리트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주 보수적인 타임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니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다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보니까 일본의 민주당이 맥없이 무너진 데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작용을 했다, 이런 서평을 썼어요. 이코노미스트면 상당히 권위 있는 영국의 잡지인데, 그렇게 쓴 걸 보니까, 믿습니다. 그 책을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군사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했죠. 그것의 알력으로서 이제, 물론 복지정책을 조금 남발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이제 실각을 하였다. 조기 실각을.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미국의 영향이라는 것이 주변국가의 국내정치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치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볼 적에, 미국이라는 팩터를 항상 넣어서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팩터를 너무 안 넣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넣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재벌이라는 팩터를 또 넣고 생각해야 한다. 그걸 우리가 너무 안 넣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마는, 나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싱거운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화를 해야한다, 우경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오래 전에 났었습니다, 요새는 안 나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나라 주류인 보수언론의 영향을, 거기서 그걸 또 확대 재생산 하니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또 주류보수언론은 또 대기업이나 재벌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정치에서 우리 정치가 우경화를 해야 한다, 중도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그런 주창은 완전히 수구화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구화의 움직임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보수 언론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타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면해서 우선 급한 것이 지금 이원집정제 개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의 찬성이론이 많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원집정제 개헌론이 야당에서도 크게 대두 할 때는 상당히 이것이 위험한 사태로 갈 거다. 왜 그러냐. 요전에 어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원집정제 문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 혼자 반론을 폈습니다. 대개는 이원집정론제를 찬성해요. 뭣도 모르고. 그날 이재오 의원도 왔는데, 아주 열변을 토합디다, 열변을 토하는데, 저 혼자만 저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저 혼자만 반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반대론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현재에는 5년 단임의 독재는 없는 거다. 이원집정제는 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대거 입각이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의원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기능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수상의 이원집정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결국, 정권이 무력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기득권 세력들의 영향력이 더 강화 된다. 그럼 대기업들은 좋아합니다. 정권의 힘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아마 재벌들이 바라는 걸 거다.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원집정제 개헌론이 퍼지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단한 혼미, 혼미 속으로 빠진다. 틀림없이 여기도 이상한 혼란 속으로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떠난 지도 오래되고, 지금 한 20년 이상 되었는데. 또 제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한다든지, 정치학 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총괄적인 안목에서만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

계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헛짚는 것이 많아요. 학자들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통계를 엄청 돌려서 책을 한 권 쓰고 그랬는데도, 엉망인 이야기를 해서요. 요전에 은수미 의원님도 그때 계셨는데. 예전에 한 번 어디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월남전이 한참일 때, 월남전 전문가들이 그 킬 레이시오(Kill Ratio)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을, 폭탄을, 탄환을 몇 개 쏘면 베트콩이 몇 명 죽는다. 폭약 대비 베트콩 죽는 숫자. 킬 레이시오죠. 킬 레이시오를 이야기 하면서, 킬 레이시오가 상승된다. 어쩌고. 이런 통계연구를 하면서, 월남전은 승리다,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게 월남전이 그렇게 통계로 볼게 아니라는 말이죠. 킬 레이시오로. 월남전은 그 민족의 역사와 그 민족주의와 프랑스로부터 이따라 오는 식민지 이런 거 맥락에서 그것을 들여다봐야지, 그걸 뭐 킬 레이시오로 보는 것이, 미국학자들이 잘못 본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란서 학자들이 그걸 비판했는데. 우리 정치를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킬 레이시오로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괄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고 제 얘기가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대선을 아주 거칠게 이야기 하면 지난 대선에서 반반이었습니다. 팽팽했죠. 그 중앙정보부나 등등의 부정은 계량화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주먹구구로 생각해서,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다른 상황이 똑같다면, 다음 대선은 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정희 후광을 입은 박근혜가 없어진다 말이죠. 그럼 다음 대선은 요전번의 영남 등등의 보수 세력 플러스 박정희의 후광을 입은 박근혜가 있어서 반반인데, 거기서 그 후광을 입은 박근혜가 빠져 버리면 나머지 보수 세력들이 힘이 팍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똑같다면 요다음 대선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원집정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물론 다 짐작하고 있는 얘기 입니다마는, 저는 총체적으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이야기 하면, 문재인 대표 따리 붙이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고. 지난번 대선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 정책제시도 그렇고, 박근혜 후보 하고 TV 토론도 그렇고 하면은 안정감을 주었다구요. 무슨 적의도 안 보이고. 상당히 온건한 안정감을 주고. 국민들도 그만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믿음이랄까, 괜찮았다고요,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책 제목도 이상한데, 그『끝이 시작이다』있죠. 책 제목이 이상한데, 그게 숫자도 있어요, 그 앞에. 그 책도 글쎄, 정독을 해보았는데 탓할 데가 없어요. 나무랄게 없어요. 내가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고 열심히 봤는데, 트집을 잡을 데가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대선에서 제시된 그 비전이 문재인 씨 개인이 아니고, 그때 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혜를 모은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당론이라. 당의 의견이 총집결된 게 지난 번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발표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뭐 엉뚱하게 달리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연장선에서 그 총체적인 정책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스레 돌발 행동 있죠, 뭐 돌발적인 주창, 가끔 야당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건 참 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놀래키면 안 돼요. 괜스레 이상한 주장 콱 해서 자신의 인기는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국민을 놀래키게 해 가자기고는 표가 뺏기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지난번의 페이스로 그걸 그냥 조용히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상한 돌발적인 언동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목희 선생 맞아요, 제 의견이? (웃음) 놀라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선까지 시간 관계로 볼 적에, 아참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제 3자입니다. 이제 이 당이 구심력이 생길 때가 되지 않았나, 구심력이. 그럴 경우는 밉든 곱든 간에 당의 지도자를 감싸 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당원들이 당내에서 지도자를 감싸고 존경할 때, 국민도 그 지도자를 감싸고 존경하지 않는다. 출발은 당내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생겨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문재인 씨 좋아하게 생겼네. 하여간 이게 원리입니다. 누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원리가 당내에서 우선 지도자를 중심으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힘을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도 자연히 그 지도자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로 생각할 때, 이제 새정련 당의 기풍도 그걸, 옛날에는 그걸 작풍이라고 그러지, 작풍, 당의 작풍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당이 깡깽이가 아니고, 이제 진짜 진지한 정당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당의 구심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전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강한 사자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한 페이지 특집으로 났습니다. 지도자는 사자처럼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런 것이 곽성민이라고 내가 이름을 적어 왔는데, 아주 잘 썼어요. 지도자는 강해야 된다. 근데 저도 그 며칠 전에 지도자는 용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지도자는 용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구심력을 몰아줄 때에는, 지도자 자신도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 결단력도 보이는 거고, 또 그 사람 자신도 용기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상승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여하간, 당의 작풍이 바뀌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종북몰이가, 결국 끝까지 남습니다. 이 종북몰이. 이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로 계속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썼는데, 이게 제일 한심한 이야기는 김기춘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남재준이라는 국정원장이 똑같이, 종북몰이의 대표선수인 예격대령인가 있지요, 등등을 만났다. 이것이 또 때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역대정권에서 그런 종북몰이 총대장을 정보부장하고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만났다는 그게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게, 내 기억에는. 그런데 김기춘과 남재준이가 우리나라 종북몰이의 대표선수를 만났다고, 또 그것이 신문에 보도까지 되고. 그러니까, 종북몰이하고 정권이 아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중앙정보부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종북몰이의 배경은 박 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맞서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요전에 내가 어디다 썼는데, 최종숙이가 뭔가 하는 박사 쓴 책을 보니까, 종북몰이는 어떻게 대항해야된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썼던데. 거기에는 정면으로 대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거는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계속 과제로 삼고 생각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동문제뿐아니라 진보진영 학생 때서부터, 학생 때라는 것이 50년대입니다. 학생 때서부터, 관심을 갖고 관찰해왔고, 신문기자일 때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왔는데, 제가 느

낀 거는 그런 겁니다. 그 이념이나,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를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걸 앞세우다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저도 철학공부도 좀 했고, 괜스레 그런 것을 두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지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데올로기가 이념이나 이런 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 현실의 정치, 현실을 다루는 정책, 그 축적, 그리고 현실문제에서의 정책 발전, 이런 거로 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걸 체계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또는 이념이다 하면 몰라도,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인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김대중 씨가 아주 명언을 한 게 있죠. 정확한지 몰라도,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나는 그 말 이상으로 명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김대중 씨가 던져 준 그 말이 문제의식은 정말은 학문적으로, 서생적으로 갖고, 사회적 대응은, 정책적 대응은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한다. 김대중씨가 그래서 성공한 것인데. 그런 태도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북몰이 문제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적어도 언젠가는 막힌 골목이 올게 아니냐, 오래는 가겠지만. 오래는 갈 겁니다.

제가 요새 우연한 일이 있어 가지고, 고종훈 씨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고종훈 씨의 자서전 비슷한 옥중기를 열심히 봤는데, 고종훈 씨는 계속, 승공혁신, 승곡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 사람 캐치 프레이즈가. 꼭 승공을 붙여요, 앞에다. 승공민주사회주의, 승공혁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메카시즘(McCarthyism)적인 분위기이니까, 승공을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색하지, 어색한데,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 사람도, 형무소에 여러 번 들어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승공개혁, 승공혁신 그게 안되는거죠. 그게, 그렇게 구차하게, 어색하게. 여하간 고종훈 씨가 그랬습니다. 승공 뭐, 승공 뭐. 그러니까 그래서 종북몰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시일은 좀, 이게 이 문제로 오래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좀 고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이 당에서 무슨 정책 엑스포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근사한 발상 같습니다. 그래서 제 메모 해온 것은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말씀이 계시면……